

2023. 2. 2. (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이지환 보좌관(우원식 의원실) 010-9254-9137

한국와이퍼 법원 판결 및 일본대사관 방문 관련 기자회견 일본 덴소와 관련 회사들은 고용안정협약 약속을 준수하라!

2023년 2월 2일(목) 0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대·기아완성차 와이퍼 납품의 28%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본덴소 소유의 덴소코리아, 덴소와이퍼시스템 등 계열사까지 한국와이퍼 노사 간 체결한 고용합의에 대해 연대보증까지 하였으나, 결국 덴소그룹 측은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청산절차와 일방적인 대량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한국와이퍼는 노동법 위반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또 지난 1월 30일에는 한국와이퍼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한국와이퍼 노사 단협에 따라 노조와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와이퍼를 포함한 일본 덴소그룹이 약속한 고용안정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일본 덴소그룹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언제까지 숨기만 할 것입니까? 또한 적자 때문에 회사경영이 어려워 청산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한국와이퍼는 청산 개시 직전인 '22.12.29자로 1,170억을 증자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회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누가 낸 것입니까? 이제 일본 덴소그룹이 직접 나서 해명하고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을지로위원회와도 만나서 대화합시다. 적극적 중재도 약속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중재와 행동 촉구합니다. 어제 을지로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본 사안의 문제점을 직접 알리고 해결 촉구를 요청하기 위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태가 안산의 작은 공장 노사분규 문제가 아니라 한일 경제 우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켜야한다는 일본 특유의 신뢰 문화가 한국와이퍼 사례에서만 유독 예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일본정부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에게도 적극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작년 10월에 시작하고 종료하였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텐소코리아 등 관련 회사들에게 제기된 노동법 위반 사항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유독 일본에만 이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이제 한국와이퍼 사안은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우리정부가 지켜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기업의 불법적 행동에 눈감는 것이 결코 한일우호를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텐소코리아 등 나머지 관련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텐소의 잘못이 드러나면 대한민국의 지엄한 법률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번 사안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밝힙니다. 애초 텐소의 한국와이퍼 기획청산 계획을 현대차가 보고받았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청산 후 한국와이퍼의 기계설비 매수가 유력시 되는 현대차 납품업체 디와이오토 측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와이퍼의 설비를 인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와이퍼 매각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객’은 누구란 말입니까? 현대차가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당한 행위를 하는 텐소의 납품 거절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의 잘못과 책임이 무엇인지도 끝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고용합의서를 손에 쥐고도 억울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일본 텐소그룹과 일본정부, 윤석열 정부와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성실하게 일해 온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외국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한순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3. 2. 2. (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첨부]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 최윤미 발언문

한국와이퍼 사측은 12월 27일 29일 두차례에 걸쳐서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귀하는 휴업 기간 중 회사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회사에 출입할 수 없다. 회사의 청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별도의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회사는 회사 잔류를 선택하신 직원분들이 조기퇴직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해고가 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조기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문자로라도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에게 자발적인 퇴직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단협으로 맺은 청산에 대한 합의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발적 퇴직을 강요한 것입니다.

일본 텐소자본과 한국와이퍼는 뒤로는 청산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단체협약을 사기로 맺었을뿐더러 위로금 지급을 협박으로 자발적 퇴직을 강요하는 등 철저히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먹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원의 결정문에도 협약서 체결 당시 회사가 이미 청산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협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텐소와 한국와이퍼가 한국사회의 노조법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러한 기획청산과 해고를 진행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올바르게 내려졌다고 생각되어 그동안 상처받은 조합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와이퍼 분회 조합원들은 현재 차가운 공장바닥에서 숙식을 하며 사측에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 중입니다. 이마저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비조합원들을 제외한 조합원들에게만 공장출입금지를 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사태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44일간 단식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단식 44일째 되는 날 텐소코리아가 단식중단을 조건으로 4자교섭을 제안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단식을 중단했

으나 텐소코리아는 4자교섭 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마저도 기만적으로 대하는 텐소자본에 대한 우리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긴 어려운 것입니다.

약속과 법을 지켜달라는 단순한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비인권적인 생활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법을 지키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빼앗은 일본텐소자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제대로 하고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우리같은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정의로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